

웹툰에 등장하는 신화적 세계관의 재편에 대한 연구

박찬익*

*청운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e-mail:butterfly9@chungwoon.ac.kr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Mythical Worldview Appearing in Webtoon

Chan-Ik Park*

*Dept. of Multimedia Science, Chungwoon University

요약

웹툰 <신과 함께>는 한국 신화속의 저승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차용하고 있는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신화를 재해석 하면서 고전 신화의 가치나 교훈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새로운 상상력의 전개를 위해 고전 신화의 변주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신화에 대한 새로운 현대적 해석은 한국의 무속신화와 불교의 저승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화의 대중화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신과 함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신화의 차용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웹툰 <신과 함께>에 나타난 신화적 세계관의 재해석을 분석하고,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차용되는 신화의 대중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검토하였다.

<신과 함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된 주호민의 웹툰이다. “2010년 저승편을 시작으로 2011년 이승편과 2012년 신화편이 옴니버스형식으로 연재되었다. 2011년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만화 부문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일본 만화 잡지에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이밖에 뮤지컬, 라디오 드라마, 게임으로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화<신과 함께> 1편은 원작 웹툰의 “저승편”을, 2편은 “이승편”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 1, 2 편은 현생이라는 시간과 현대 한국 사회와 저승길, 일곱 지옥이라는 공간 그리고 자홍, 수홍, 삼차사, 저승시왕 등의 인물을 모두 공유한다. 특히 2편에서는 1,000여년전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강림과 해원맥, 그리고 해원맥과 이덕춘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보여준다. 1편의 자홍과 2편의 수홍은 죽음, 저승, 환생이라는 세 단계의 여정을 거치는데, 두 영화에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통적인 저승관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인간화를 통한 서사의 비극적 전환이 드러나고, 전통과 현대적 요소의 융합을 통해 서사가 확장되며 시대적 트렌드까지 반영되면서 독특한 세계관이 펼쳐진다.

2. 서사구조 분석

2.1 신화의 차용

<신과 함께>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는 저승에 관한 내용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 묘사하지만 이 저승은 기독교적인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의 신화중에서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저승의 모습이다.

<신과 함께>는 주인공 김자홍이 죽은 뒤 저승차사와 함께 저승 입구인 ‘초군문’으로 간 뒤 변호사 ‘진기한’을 만나 저승 관문을 하나하나 통과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주요한 공간적 배경은 저승이다. 일반적으로 저승과 지옥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무속 신화에서의 저승은 이승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죽음 이후의 저 세상이며 지옥의 상위 개념이다.

우리의 민속 신앙인 무속신화의 저승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일 뿐, 구체적인 개념이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 이런 관념이 오랜 세월 구전을 통해 전해 오면서 타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승과 지옥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구체화 된 것이다. 특히 지옥의 개념은 원래 무속신화에서는 없던 개념이지만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웹툰에서 그렇듯이 영화에서도 “차사본풀이”같은 신화 속의 인물들이 보통사람 형상으로 등장한다. 인간의 삶 속에서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가 친근하고 코믹하게 펼쳐진다. 결국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저승이나 차사같은 요소가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재구성된 콘텐츠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런 융합과 철거민의 비극 등 시대적 트렌드까지 반영하여 서사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프로프의 민담 변형 유형에 따르면 영화 내용이 웹툰 서사를 변형한 데서 수사적 변형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웹툰 내용과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차사 본풀이에서 웹툰으로의 논리적 변형, 역사적 변형은 영화에서도 큰 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저승관과 한국의 무속적 저승관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 2편에서 자홍과 수홍이 49일 동안 7번의 재판에 겪는 저승 여정은 기존의 전통적 저승 세계관을 기초로 하지만 현대적으로 변용된 여러가지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스토리텔링된 것이다. 이런 현대적 변용으로 흥미 요소를 이끌어 낸 것이 흥행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신과 함께>에 수록된 신화들의 원전은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적으로 구전되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공통점이 없고 각각의 작품들이 서로 이어지는 서사적 연결고리가 없다. 그러나 웹툰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을 만들고 컨버전스 스토리텔링(convergence storytelling)을 통하여 천지왕 본풀이를 중심으로 6편의 에피소드를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만들었다. 천지왕 본풀이의 천상-이승-저승의 공간적 배경을 다른 신화의 세계관과 연결하고 시간의 순서를 정해 각각의 개별 신화들을 연결된 시간의 흐름속에 배치하였다.

[표 1] <신과 함께>에 나타난 신화적 요소

신과 함께 신화편	원전	주요 신격
대별왕 소별왕	천지왕본풀이	천지왕, 대별왕, 소별왕, 염라대왕
차사전	창작	일직차사(해원맥), 월직차사(이덕춘)
할락궁이전	이공본풀이	꽃감관(사라도령, 할락궁이)
성주전	성주풀이	성주신(황우양), 터주신(막막부인)
녹두생이전	문전본풀이	조왕신(여산부인), 문신(일곱형제) 축신(노일부인)
강림전	차사본풀이	강림차사

이렇게 개별 신화들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은 서로 다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관계를 정립하여 개별 신격을 하나의 계보로 정리했다.2)

<신과 함께>에 나타나는 저승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한국

의 신화를 차용하고 있지만, 제10대왕에서 재판이 끝나거나, 49재와 같은 천도의식은 불교의 지장신앙이나 시왕신앙의 개념이 더 강하다. 한국 무속의 ‘시왕맞이제’에 나타난 저승의 모습은 불교와 동일하게 제1 진광대왕부터 제10 전륜대왕까지는 이승의 죄를 심판하여 육체적인 형벌을 가한다. 그렇지만 무속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제11 지장대왕, 제12 생불대왕, 제13 좌도대왕, 제14 우도대왕, 제15 동자관관까지 5명의 대왕이 추가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대왕들은 벌을 준다고 보다는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이승에 남긴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3) 불교의 시왕이 심판의 기능만을 담당하였던 반면 무속 신앙에서는 시왕이 심판에 기능에 더하여 한을 풀어주는 기능까지 담당했다.

<신과 함께>에는 저승의 모습을 일곱 번의 재판과 재해석된 각 지옥의 모습 외에도 한국의 여러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배경이 다수 등장한다.

2.2 저승과 관련된 인물의 차용

<신과 함께>에는 배경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저승과 관련하여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무속신화 속의 인물들이다. 저승과 관련된 신화 속 인물은 저승차사다. 일직차사나 월직차사는 불교의 지옥관에 나오는 인물들로 각 대왕의 옆에서 보좌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과 함께>에서 표현된 차사들은 망자를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의 개념이다. 이는 한국의 무속 신화중에서도 제주도 신화인 차사본풀이에 나오는 차사의 모습과 더 유사하다.4)

또한 차사는 각각의 담당 직무가 있는데, 일직차사는 하늘에서 심부름을 담당하고 월직차사는 땅의 일을 보좌한다. 강림차사는 이승에서 망자를 데려오는 직무를 담당한다. 강림차사는 이승의 망자를 데려올 때 적폐지를 들고 찾아가는데 만약 조왕신, 일문전신, 뒷문전신 같은 집을 지키는 가신들이 집주인을 지켜주면 강림차사가 망자를 데려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지붕의 상마루에는 가신들이 없기 때문에 강림은 이곳에서 망자의 이름을 3번 불러 몸에서 영혼을 불러낸다. 이와 같은 ‘차사본풀이’의 저승차사 이야기는 <신과 함께>에 그대로 차용되었다. 일직차사인 해원맥과 월직차사인 이덕춘이 강림과 함께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었을 뿐이다.

염라대왕은 저승차사들이 데리고 온 망자가 이승에서 지었던 죄를 심판하고 귀인으로 판명되면 다시 인간으로의 환생을 명한다. 이를 보면 염라대왕은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주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신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신과 함께>에서는 이 염라대왕이 사실은 강림의 아버지였던 강문직 장군이라는 설정으로 반전을 이끌어낸다. 염라대왕은 자신을 죽인 강림이 진심으로 속죄할 수 있도록

1,000년의 세월을 기다려주는데, 이렇게 생전의 인간이었던 자가 염라대왕이 된다는 설정을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에 적지않게 나타난다.5)

3. 결론

웹툰 <신과 함께> 는 한국 신화속의 저승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차용하고 있는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신화를 재해석 하면서 고전 신화의 가치나 교훈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새로운 상상력의 전개를 위해 고전 신화의 변주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신화에 대한 새로운 현대적 해석은 한국의 무속신화와 불교의 저승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밝혔던 작품을 관통하는 사필귀정이라는 주제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착하게 살면 훗날 저승에 갔을 때 진기한 변호사와 같은 귀인을 만나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화의 대중화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신과 함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신과 함께>는 현실의 문제를 신화적 대안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1] 강미선, “웹툰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제 5권, pp. 89-115, 2011년
- [2] 이명현, “<신과 함께>에 나타난 신화적 세계의 재편”, 구비문학연구, 제 40집, pp. 167-192, 6월, 2015년
- [3] 김태훈, “지장 신앙의 한국적 변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pp. 45-52, 2010.
- [4] 김의숙, 이창식,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pp. 243-264, 2009년
- [5] 김명석, “영화 <신과 함께>의 서사구조와 인물형상”, 국제언어문학 제41호, pp. 403-428, 12월, 2018년